

[기획] 열려라 정보공개③ 위례시민연대(<http://www.skngo.or.kr/index.htm>). 낯선 이름의 이곳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날카로운 정보공개를 이끌어내는 시민단체로 유명한 곳입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공공 숨겨둔 공공기관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정보가 공개되고 시민들에게 공유될 때 행정의 투명성은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씨를 뿌리는 것은 여전히 시민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서울시와 충청남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의 리더십으로 자발적이고 활발한 정보공개 정책이 실현되고 있지만 옥천군은 아직 그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에 의한 정보공개가 활발해 질 때 지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일 오후 2시 위례시민연대 사무실에서 황기룡 사무국장을 만났습니다.

‘그 많은 법인카드 마일리지는 누가 다 썼을까?’

10년 간 10만 건 넘는 정보공개청구한 위례시민연대

Q. 위례시민연대는 어떤 곳인가요?

= 처음 활동을 시작한 건 1996년입니다. 송파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협의체 성격이었는데 노동법 날치기 반대운동 등 정치적인 활동에 비중이 컸었습니다. 2000년에는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해 낙천, 낙선운동을 벌였고 실제로 강동을 선거구의 낙천 대상자를 떨어뜨리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현안에 중심을 두는 것은 애초 저희들이 꿈꿨던 풀뿌리 시민운동과는 다른 것이어서 2001년부터 지역 운동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 한편 공공기관을 상대로 일상적인 행정감시를 시작하게 됐던 거죠.



위례시민연대 황기룡 사무국장

레 흠씨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2010년부터 10년 간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으로 10만건 정도 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셨습니다. 언론에 크게 난 건 들도 있는데요. 구의원들의 불법주차 과태료 빼주기 관행 같은 것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불법주차자를 한 구의원들이 단속에 걸렸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슬며시 빼준 거예요. 공무수행 중이었던 것처럼 꾸며서요.

위례시민연대의 활동

은 비단 송파구 혹은 서울시에 대한 감시에 머무르지 않는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등 여러 분야와 층위로 정보공개청구 등 시민감시활동을 벌인다. 또 정보공개청구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법률적인 근거를 찾아보고 관련 부서에 질의응답을 끌어내기도 한다. 최근에는 서울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청사 복도에 흡연실을 운영하던 구로구청을 상대로 1년 간의 싸움 끝에 ‘흡연구역 표지판과 재떨이를 철거’ 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지역 내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 구의회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단순히 방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개인별로 출석, 태도, 관점, 질문순, 질문수준, 질문에 대한 지식 정도 등을 평가한다.

Q. 일반 시민들로서는 쉽게 알 수 없었던 관행이 위례시민연대 덕에 들들 났네요. 그 밖에는 또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그래요, 이거 옥천에서도 한 번 알아보세요. 공무원들이 일 하면서 법인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개인이 쓰는 카드는 사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나 포인트가 쌓이는데, 법인카드도 마찬가지로요. 이거 어디다 어떻게 쓰는 지 아세요? 저희가 법인카드 마일리지 사용에 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공무원들 하고 배우자들이 공짜 해외여행 갔다오는데 썼더라고요. 법인카드의 용도가 공익에 있는 것처럼 마일리지도 공익적으로 써야 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썼던 거죠.

또 오래 전 일IGIN 합니다만 2001년에 송파구청장 하고 구의원 네 명이서 자매도시 방문이라는 명분으로 뉴질랜드를 갔다 왔어요. 근데 알고보니 까 골프치고 온천 갔다오고 카지노 하고 그랬더라고요. 주민감사청구 하고 난리가 났었죠. 결과적으로 주민감사청구가 되진 않았지만 그 자체로 상당한 ‘정치행위’로서 의미가 있었어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후보들을 상대로 반부패투명행정 공약 비교 발표사업도 했습니다.

위례시민연대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 100여명의 후보들에게 개방형 감사기구(시민감사관제) 독립,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제), 주민참여예산제, 부패행위자 징계 강화, 기관장 임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일일 공개, 모든 문서 공개 등을 질의해 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구로구청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민운동부조금 등 구체적 정책으로 이를 실현했다. 결과는 위례시민연대 누리집 문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황기룡 사무국장의 제안을 받아 옥천신문도 옥천군을 상대로 각 부서별 법인카드 마일리지 사용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지난 19일 했다. 그 결과는 추후 지면을 통해 보도할 예정이다.

Q. 시민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하라고 만든 것이 지방의회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감시를 못하고 있죠. 삼급 단체장 감사원 등의 정기감사는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이 직접 나서서 감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그것을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모든 시민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맡겨서도 곤란합니다. 능력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고 맡겨야죠. 주체가 어디에 됐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옥천에서는 옥천신문이 할 수도 있고 다른 시민단체에서 할 수도 있죠. 대신,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이요. 이 분들을 대신해서 전문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주는 곳이 있으면 됩니다.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정보공개청구를 대행하고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지역사회 공익발전 기금으로 사용한다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정창영 young@okinews.com



옥천농협 하나마트로 장을 보러 온 한 주부가 배를 고르고 있다. 올해 배는 수확 부진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똑똑, 추석 상차림 비용 무사한가요’

“돈 10만원을 갖고 나가도 비싸서 살게 없어요. 추석 음식 장만은 기본적인 것만 한다고 해도 30만원을 훌쩍 넘어요.” 옥천읍에 사는 주부 A씨의 말이다. A씨 뿐 아니라 기자가 마트와 시장에서 만난 주부들은 하나같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하소연을 쏟아냈다.

옥천농협 하나마트는 올 추석 상차림비용이 작년 추석보다 적게 들 것으로 봤다. 이상기후와 이른 추석으로 물량이 없어 값이 치솟았던 작년보다는 나은 상황이라는 것.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 추석 상차림 비용을 전통시장의 경우 18만5천원, 대형유통업체는 26만원으로 파악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주부들이 느끼는 물가부담은 어느 때보다 높다. 올 여름 가뭄과 태풍 등의 기상악화로 최근 한 달 동안 물가가 급격히 상승했고 워낙 물가가 비쌌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만큼 약간의 가격하락은 거의 체감할 수 없다는 것.

옥천농협 하나마트 기준(18일) 밀가루, 식용유 등 공산품의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한판에 4천5백원이었던 계란은 현재 2천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 개당 4천원까지 올랐던 무는 올해 2천5백원으로, 시금치도 4kg 한 상자가 4만원대에서 3만원 대로 가격이 하락했다. 배추는 1포기에 5~6천원 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대파의 경우 물량이 없어 한판에 2천원이었던 가격이 3천원으로 뛰었다. 채소가격은 태풍 산바의 영향과 추석 직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오를 전망이다.

과일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배는 표면에 검은 점이 생기는 흑성병 유행, 우박피해에 이은 세 번의 태풍으로 낙과 피해가 극심해 물량이 부족하다. 현재 신고배의 경우 9~10개가 들어있는 7.5kg 한 상자의 가격은 4만5천원. 같은 상품이 지난해 추석에 3만8천원대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해 7천원 정도 상승했다. 지난해 이른 추석으로 아예 단감이 거래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올해는 40개 기준 10kg 한 상자에 5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예년에 비해 비싸지만 지속적으 물량이 공급됨에 따라 점차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다. 계속 평이한 가격을 유지했던 사과와 최근 태풍으로 인해 값이 오르고 있다. 또한 하나마트 관계자는 배의 물량이 부족해 선물용 수요가 사과로 몰릴 경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만원대에 거래되던 중상크기 황로 5kg이 현재 3만8천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축산물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국거리에 많이 사용되는 앞다리살과 설도(600g, 1만6천원), 등심(600g, 3만원)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 1만원 초반대에 거래되던 삼겹살과 목살(600g)은 9천원대, 닭고기는 토종닭(한 마리)이 1만1천원에서 9천원 대로 지난해보다 값이 내렸다.

명절에 많이 사용되는 조기와 동태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제사상에 주로 사용되는 부세조기의 경우 한 마리에 8천원, 동태포는 100g에 1천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오징어는 한 마리에 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0~20% 저렴하지만 평소보다 높은 가격이다. 이는 잦은 비와 태풍으로 조업량이 적어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마트에서 만난 주부 현수경(52, 동면)씨는 “요즘 뭐가 특히 비싸다는 것 없이 다 비싸서 장보러 나오기가 무섭다”고 말했다. 덧붙여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당연한 것 아니겠냐”며 “요즘에는 반찬 한 가지만 놓고 밥 먹자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슬기 seul@okinews.com

■ 옥천농협 하나마트 주요품목 가격

품목	2012년	2011년 추석 전
무(1개)	4천원	2천500원
시금치(4kg)	3만원 대	4만원 대
배추(1포기)	5~6천원	
대파(한단)	3천원	2천원
사과(황로, 5kg, 중상크기)	3만8천원	4만원대 초반
배(신고, 7.5kg 9~10개 들어)	4만원~4만5천원	3만2천원~3만8천원
소고기(600g)	국거리	1만6천원
	등심	3만원 대
돼지고기(600g)	삼겹살, 목살	9천원
토종닭(1마리)		9천원
1만1천원		
조기(1마리)		8천원
동태포(100g)		1천2백원
달걀(1판)	2천5백원	4천5백원

아웃도어 전문매장

등산복 클라이머홀릭
골프웨어 팜스프링

클라이머홀릭은 멈추지 않는 변화와 열정으로 다진 일류 브랜드,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아웃도어 문화창조기업입니다. 지역 선후배님의 성원에 힘입어 아웃도어 일류 브랜드 '클라이머홀릭'을 우리 고장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고객의 삶과 건강을 생각하는' 클라이머홀릭의 이념처럼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70~40%
(일부품목 제외)

Sale

◆ 가을 신상품 다량입하, 단체복 환영 ◆

문정리 117-4번지 보은방면 문정주유소 맞은편 ☎ 733-1729

훼미리한식뷔페

메뉴 한식뷔페 / 생삼겹살 / 육회

훼미리한식뷔페 옥천상륙!!!

가족, 직장동료, 친구들과 부담없고, 정겨운 자리! 착한 가격 1인당 6천원 고객님께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훼미리한식뷔페 옥천읍 금구리 옛 대가 자리
대표 한흥덕 ☎ 731-5740, 010-6642-6336